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세계적으로 트럭 운송 화물 절도 증가세 여전

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유럽계 AI 기업 2개사, 스마트항만 구축 위한 협업 지속
2. CMA CGM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영향을 낙관적으로 전망
3. 대만, 메가쉽 터미널로 스마트항만 혁신 가속화
4. 로봇 산업의 발전이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
5. 머스크, 인도발 북유럽항 통합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시작



공지사항

-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

명사 스피치

“스마트 항만은 5G 초저지연 통신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하는 장이 될 것이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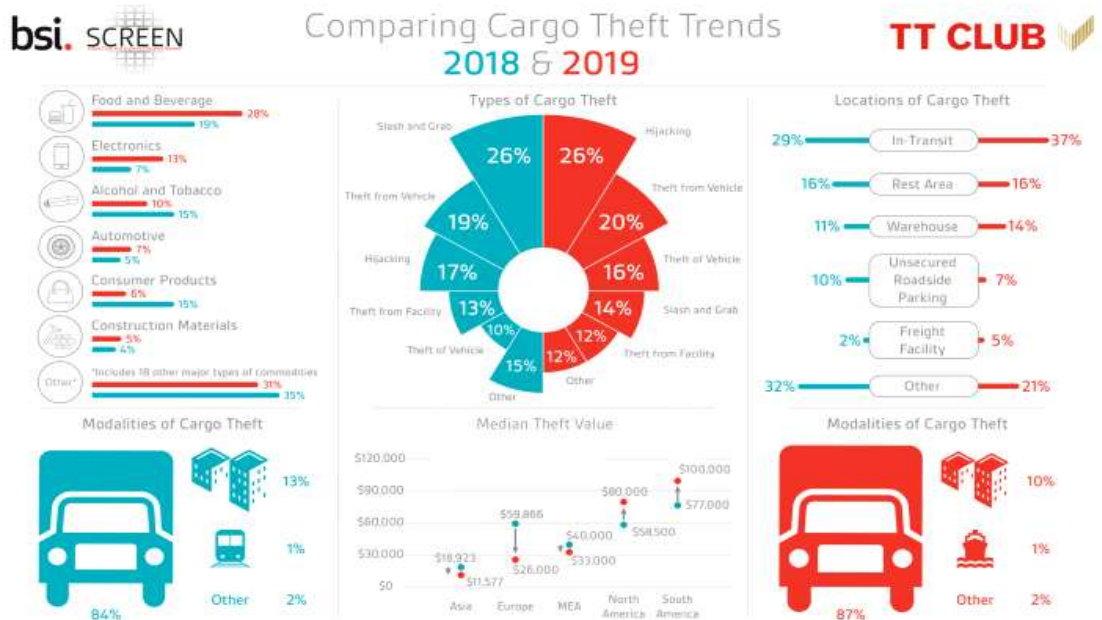
남형도 포테넷 대표
(2020. 3. 10. /한국일보)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세계적으로 트럭 운송 화물 절도 증가세 여전

2018년과 2019년의 국제 화물 도난 추세 비교



자료 <https://www.logisticsmiddleeast.com/>

- 세계적인 운송·물류 보험회사인 TT클럽과 공급망 정보제공업체들이 함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,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화물 절도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철도, 해운 등 다른 형태에 비해 트럭 운송의 도난률이 압도적으로 높음
 - 이러한 추세의 일관성은 도난 품목에서도 나타나는데, 식품과 음료가 2018년에 도난 품목의 19%를 차지한 데 이어서 2019년에도 28%를 차지하며 최상위 도난품목으로 조사되었음
 - 운송 중이거나 휴게소 또는 안전하지 않은 주차 장소에서 발생한 도난이 60%를 차지함에 따라, 보안이 강화된 트럭정류장 시설 등을 제공하여 도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남아메리카는 사고 건당 도난 화물량과 손실금액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
 - 남미는 안전하지 않은 지역(unsecured locations)에서 한 번의 도난 사고에서 분실되는 화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
 - 사건 당 손실액은 남미는 10만 달러,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1.1만 달러를 약간 넘는 금액임
- 참고자료 : <https://www.logisticsmiddleeast.com/supply-chain/35190-cargo-theft-report-confirms-upward-trends-in-2019>(검색일: 2020.03.09.)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유럽계 AI 기업 2개사, 스마트항만 구축 위한 협업 지속

- Awake.AI와 Silo.AI는 지난 1년간의 협업으로 2개의 스마트항만 솔루션을 발표함
 - Awake.AI는 해운·항만물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핀란드 기업이고, Silo.AI는 북유럽 최대의 사설 인공지능 연구실임
 - 이들은 지난 1년간의 협업으로 2개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솔루션을 개발함
 - 첫 번째는 기계학습 기반의 선박 도착시간 솔루션(기항 최적화)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도착 예정시간 정확도가 최대 80% 높음
 - 두 번째는 실시간 화물 및 차량 추적·분석 솔루션으로 분석의 자동화와 물류계획의 신속화를 실현하고 잠재적인 돌발상황 감지를 가능케 함

인공지능 기반 선박정보 표시 소프트웨어



자료 : <https://silo.ai/wp-content/uploads/2020/03/awake-tablet-blog-scaled.jpg>
(검색일: 2020.03.09)

- 두 기업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을 수립함
 - 이들은 스마트항만 구축 및 공급사슬 운영개선을 위해 기계학습 기반의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을 수립함
 - 특히, Awake.AI는 항만의 운영 효율성, 보안성, 접근성을 개선하고 디지털화를 달성해 자율운항선박에 대응하는 항만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함

참고자료 : <https://silo.ai/awake-ai-and-silo-ai-collaborate-in-bringing-intelligence-to-ports-and-maritime-logistics/> (검색일: 2020.03.09)

서정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676, jseo@kmi.re.kr

CMA CGM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영향을 낙관적으로 전망

-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코로나바이러스-19(COVID-19) 사태로 마비되었던 중국 내 해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힘
 - COVID-19 확산으로 중국 일부 지역이 마비되면서 정기선의 기항지 변경, 기항 감소 등이 발생함
 - 다만, CMA CGM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국 내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3월 중순경 선대 규모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- CMA CGM 재무관련 담당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재고보충(restocking)과 선사들의 운임 인상으로 2분기 실적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
 - 앞서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지난달 COVID-19 사태가 2020년 수익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으며,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나 침체를 경고한 바 있음
 - COVID-19 사태가 장기적으로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나, CMA CGM 측은 구조적인 영향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COVID-19에 따른 유럽 수요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중국 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가 예상됨
 -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COVID-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함
 - 반면, 중국 내 경기침체로 인한 CMA CGM의 잠재적 영향은 2019년 핵심 수익(core earning, 약 40억 달러)의 2~3%에 해당하는 1억 달러 정도로 전망함
- 한편, CMA CGM은 2019년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주요 사업의 핵심 영업이익률을 높였으며 부채는 감당 가능한 수준임
 - CMA CGM은 2018년 3,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, 회계규칙 변경과 CEVA Logistics의 인수로 2019년에는 2억 2,9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함
 - 반면, 1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 운송사업의 핵심 영업이익률을 기존 4.9%에서 5.8%로 높임
 - 부채는 '18년 77억 달러에서 '19년 178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며 현금 창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임

■ 참고자료 : www.business-times.com.sg, 2020.3.10.

신정훈 연구원

051-797-4695, jh.gary.shin@kmi.re.kr

대만, 메가쉽 터미널로 스마트항만 혁신 가속화

- 대만의 카오슝 항만 매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메가쉽(Mega-ship)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이 완공 단계에 더 가까워졌음
 - 대만국제항만공사(TIPC; Taiwan International Ports Corporation)에 따르면 ICT(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) 2단계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임
 - TIPC는 “새로운 대형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”을 개발하기 위한 매립 프로젝트가 2019년 12월 완료 되었으며, 신규 터미널(ICT) 개발로 대만의 해양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TIPC는 새롭게 개발되는 터미널이 전 세계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요구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언급했는데, 이는 향후 초대형 선박이 카오슝항에 입항할 수 있음을 의미함
 - 매립 프로젝트를 통해 19개의 심해부두와 야적장을 위한 총 422.5ha의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며, 최신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5개 선석(수심 18m, 총길이 2,415m)을 개발할 예정임
 - 또한 관련 투자 및 활동을 촉진시키고 TIPC가 “항만-도시 협력(port-city cooperation)”으로 언급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도 제공함
- TIPC는 서태평양의 핵심 운송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, 최신 컨테이너선 취급 및 물류 능력을 구축함
 - TIPC는 카오슝항을 중심으로 대만 남부에 “경제 성장을 위한 엔진”을 구축하고, 카오슝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> 2020.3.10.

이기열 부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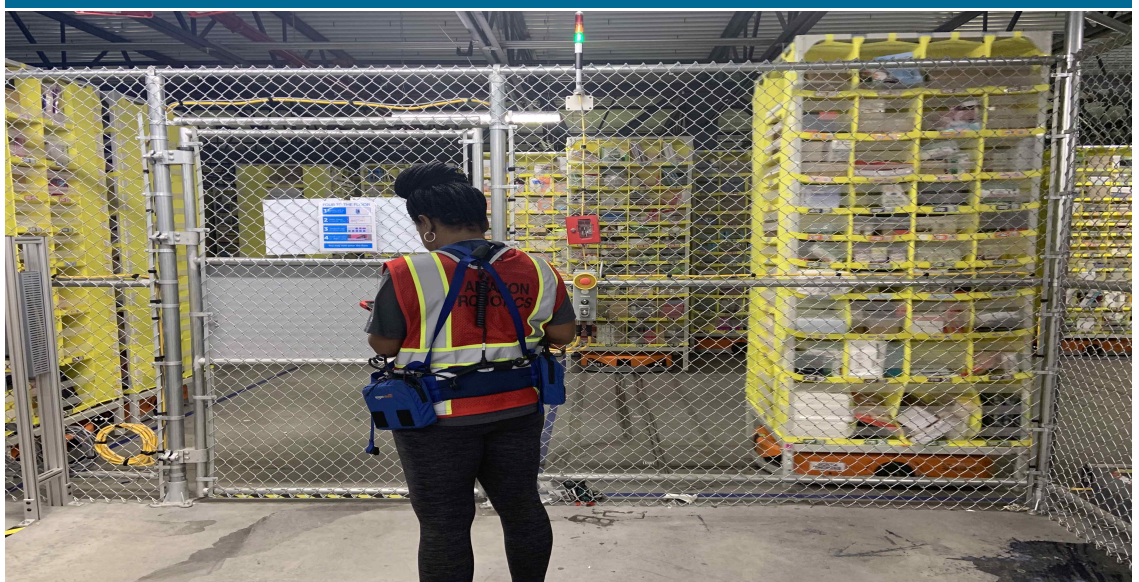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

로봇 산업의 발전이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

- 서플라이체인다이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로봇의 발전은 근로자의 안정성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
 - 물류산업에서 로봇의 발전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, 반복성을 줄여 피로도를 줄이게 함
 - 공급 업체들은 공급 속도 및 피킹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
- 반면 로봇 및 자동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됨과 비례하여 여러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, 특히 제조업에서는 로봇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
 - 산업용 로봇 한 대 설치하는 첫 해 평균 1.3명의 근로자를 대체하고, 로봇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다음해 부터는 1.6명의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음
 -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현 추세로 비춰볼 때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함
- 로봇의 발전으로 작업장은 더 효율적이고,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
 - 아마존의 로봇 자동화 시설과 관련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및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작업장에서의 부상을 당하는 비율이 자동화되기 전과 비교하여 상승하고 있음
- 아마존은 근로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아마존 로보틱스(A-R) 기술을 적용함
 - Amazon Robotics 기술은 작업자와 로봇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임
 - 작업자는 창고 밖에서 태블릿으로 상담하여 주문을 하고, 로봇은 그 주문에 따라 적재 및 하역을 함

아마존의 로보틱스 기술

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ve.com/news/warehouse-robots-safety/573365/>



- 로봇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편리함이 크지만, 이면에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로봇화 기술을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ve.com/news/industrial-robot-displaces-16-workers/573248/> 2020.3.8. <https://www.supplychaindive.com/news/warehouse-robots-safety/573365/> 2020.3.10.

류진아 연구원

051-797-4788, jaryu@kmi.re.kr



머스크, 인도발 북유럽향 통합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시작

- 머스크는 인도 서부에 위치한 마하라슈트라(Maharashtra)주의 나시크(Nashik)시와 상글리(Sangli)시에서 북유럽으로 포도를 수출하는 고객을 위해 엔드 투 엔드(End-to-End) 콜드체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함
 - 머스크의 엔드 투 엔드 서비스는 수출업체의 포장 창고에서부터 시작해 북유럽의 최종 목적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, 육상 및 해운 물류, 통관 서비스를 포함해 예약 관리, 운송 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머스크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북유럽까지의 토털 리드타임을 4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이밖에 머스크는 수출업체들이 WhatsApp과 이메일 등 더욱 더 쉬운 방법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번 서비스는 리퍼컨테이너 내부의 온도 모니터링을 통한 가시성 제공을 가능케 하는 원격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인 “Captain Peter”를 통해 구현될 예정임
 - 머스크는 또 포도 운송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 전 과정에 리퍼 기술자를 배치할 계획임
- 향후 머스크는 자사의 엔드 투 엔드 콜드체인 솔루션을 인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임
 - 현재 나시크와 상글리 지역에서는 포도 외에도 양파, 토마토, 칠리, 꼬마옥수수, 오크라 및 기타 야채 등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, 세계 시장에서 무역 잠재력이 매우 큼
 - 머스크는 콜드체인 물류 솔루션을 통해 인도의 농업 경제를 더욱 개방하고, 나아가 인도의 농민과 기업가를 국제무역 생태계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함

■ 참고자료 : www.ti-insight.com, 2020.3.3.

김은우 부연구위원
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

공지사항

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「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」을 시행 중에 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「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」과 「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2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2020년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

1. 신청 대상자

- ☐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☐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
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2. 대상 사업

- ☐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·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

〈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〉

구분	사업 내용
일반진출형	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
인수합병형	현지 물류기업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 업체 등) 인수·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
시설투자형	해외 항만·터미널·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

3. 지원내용

□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·분석 지원

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·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(경제·기술·재무·법률 등 측면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
□ (지원규모)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○ (일반진출형)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○ (인수합병형/시설투자형)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〈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〉

구분	지원 비용	지원비율
일반진출형	최대 5천만원	조사비용의 50%
인수합병형	최대 8천만원	조사비용의 50%
시설투자형		

□ (지원내용)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**용역비용**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
*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(예: 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인정되지 않음

2020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

1. 신청대상자 :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

- **물류기업**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**화주기업**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·유통·무역·건설·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 - 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 - 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2. 대상 사업

- **(개념)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,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,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·네트워크 확보,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

□ 대상사업 유형 예시

- ① **(동시진출형)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·판로 확보,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,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② **(화주주도형)**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**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**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③ **(물류주도형)**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**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**과 협력하여 생산시설·판로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④ **(현지협력형)** 현지에 진출한 화주·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·판로·물류거점 확대,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

3. 지원내용

□ 화주·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·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
○ (지원규모)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천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 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

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

*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

○ (컨설팅 수행)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)이 직접수행*을 원칙으로 하나,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

*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·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. 단,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(예: 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



신청 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0. 2. 24(월) 09:00 ~ 2020. 4. 3(금) 18:00 까지

□ 제출서류

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	신청서 1부	서류, 전자파일 함께 제출	양식 1
②	사업제안서 10부	서류, 전자파일 함께 제출	양식 2
③	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		양식 3
④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	
⑤	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- 중소기업: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- 중견기업: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		
⑥	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		
⑦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		
⑧	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		

※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,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

※ (가산점)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(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) 제출하여야 함

□ 접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○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

해운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○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(전자파일 저장매체(USB) 동봉)

* e-mail 접수 불가

선정 기준 및 방법

□ 선정 기준

-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(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)

*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,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사업제안서 평가

- 일시 및 장소 :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
-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*을 발표 (발표 20분, 질문·답변 10분)

*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(e.g. PPT, PDF 등)로 발표 가능

□ 선정결과 발표 :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

유의사항

- 신청서,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(붙임 참조)

-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·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,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


- ☐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·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☐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(051-797-4774, 051-797-4913)로 문의 바람